

최근 금융업계 '비대면 인증' 도입 급증

최근 금융업계 전반에서 비대면 인증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모바일 금융시장에서의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금융생활도 변화를 맞고 있다.

2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투자업권 전반에서 비대면 본인 실명 인증 기술 도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이란 영상통화나 생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 유권해석을 통해 실명 확인을 여러 방식의 비대면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22일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 전반에서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관련상품 잇따라... 개인정보보호 과제로 떠올라

신한은행은 씨나뱅크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인증을 선보였고, KEB하나은행도 지문인증을 통해 계좌를 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연달아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출시, 이를 만에 2000개 넘는 신규 계좌가 새로운 방식으로 개설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가상공간에서의 영상통화로 신원을 파악하거나, 개인의 특정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과거 금융생활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계좌 개설을 하거나 일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비대면 인증 기술 도입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홍채나 지문을 이용하는 등 일상의 모습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영상통화로 계좌를 개설한 40대 남성은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신기하기도 했다"며 "본인 확인은 신분증 사본의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물어면서 간단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대면 인증 기술 도입은 경기 침체 저금리 시대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

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비대면 인증을 조금씩 도입하는 금융회사들의 모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제2의 카드 사태라도 발생할 경우,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가 외면해 비대면 인증이 자리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비대면 인증 과정의 불편 생체 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사용해 생체 인증을 할 경우 정보는 단말기에 저장된다"며 "스마트폰은 이용할 수 있는 센서나 기능이 한정돼 있어 과거 금융권에서 강화해온 보안과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진수기자

한은-전자공동망 연계로 10억도 한번에 이체

앞으로 10억원이 넘는 거래자금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한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는 시범 가동 중이다.

이번 한은금융망 연계로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한 번에 즉시 입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결제시스템의 경우 상한선인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10번에 나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이 고객간 이체가 이뤄진 다음 영업일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은행의 경우 이체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신용리스크에 노출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 비중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배에 달해 일본(6.4배), 미국(3.1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금융기관이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에 따른 차액결제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때 발생하는 담보 납입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인진수기자

금감원, 취업이끼로 개인정보 악용 적발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가로채고, 금융범죄에도 연루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에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보이콧 시기에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자금 회수를 해오면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금감원의 계좌추적이나 불법 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업체라고 주장하며, 구직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금감원 금융위원장 직인이 있는 공문서를 날조해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취직이 됐다고 믿은 구직자에게 보이콧시 인출책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다시 금융사기에 악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구직자를 보이콧시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보이콧시 범치는 피해자에게 거짓 문서를 보내 민도록 하는 레터피싱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진수 기자

KB국민은행, 모바일 통한 무방문 통장 발급

KB국민은행은 모바일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무방문 입출금통장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행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에 'KB스타뱅킹' 앱(App)과 'KB ONE스캔' 앱을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촬영 및 전송 ▲기존 본인계좌 확인 및 소액 입금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인진수기자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4.57%

지난해 실적 잠정 집계... 현재 순자산 512조3241억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수익률이 4.57%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015년도 기금 결산 및 운용현황(잠정)' 등을 보고했다.

결산안을 보면 201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잠정)로 나타났다.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1.67%,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해외채권 1.52%, 국내대체투자 8.98%, 해외대체투자 14.90%의 수익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평균수익률은 4.7%, 최근 10년간(2006~2015년) 평균 수익률은 5.5%로 잠정 집계됐다.

2015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12조3241억원이며 2014년말(469조8229억원) 대비 42조5012억원(9.0%)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후 적립되는 금액 21조2421억원과 운용수익 21조259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적립금 512조33000억원중 511조7000억원(99.9%)은 금융부문에 운용되고 있다.

/인진수기자



영화처럼 등장한 볼보 올 뉴 XC90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 럭셔리 SUV 시장을 선도할 7인승 SUV 올 뉴 XC90의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출시 행사를 갖고 홍보모델 배우 이정재와 함께 첫 선을 보이고 있다.

KT, 24세 이하 고객 전용 요금제 출시

KT가 만 24세 이하 고객 전용 Y24 요금제를 3일 출시했다. 그동안 연령대 특화 요금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만65세 이상 고연령층으로 양분돼 있었다.

KT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바일 데이터 이용시간이 가장 길고 ▲콘텐츠나 부가서비스 이용 의향이 강하고 ▲약 7%가 부모로부터 통신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20대 초반 고객

을 겨냥한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2만원대와 5만원대 사이의 총 6종 요금제로 출시되는 Y24 요금제는 만 2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Y24 요금제 이용 고객은 매월 기본 제공 데이터에 추가로 매일 연속 3시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시간 동안 2GB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며, 최대 3M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인진수기자

구독신청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